

# 새정치 호남 광역단체장 경선 내달 10일째 실시

세월호 참사 여파 후보 경선 1주일 이상 지연

공론조사 배심원단 선정·여론조사 일정 등 빠듯

전남지사 경선틀 오늘 확정...광주시장은 23일쯤 결정

여객선 세월호 참사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경선 일정이 최소한 1주일 이상 지연될 전망이다.

특히 광주시장, 전남지사, 전북지사 후보 등 호남지역 3개 광역단체장 경선은 다음달 10일을 전후해 치러질 전망이다.

20일 새정치민주연합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예기치 않았던 세월호 참사로 인해 경선 일정이 상당 기간 지연될 예정이다.

당장 이달 말로 예정됐던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은 5월 2일이나 3일 치러질 전망이다.

특히 호남지역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은 5월 10일을 전후해 치러질 전망이다.

공론조사 배심원단 선정, 여론조사 일정, 행사장 확보 등을 고려할 때 다음달 10일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주에 공천관리위원회와 상임최고위를 개최,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경선 후보와 일정을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주 회의를 열어 전남지사 후보 경선 틀과 관련, '여론조사 50%+공론조사 배심원제 50%'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 전남지사 후보 경선에 있어 100% 공론조사 배심원제를 적용하자는 목소리도 있어 21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경선 틀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장 경선 후보 확정과 경선 틀은 아직까지 윤곽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최고위원회의나 공천위에서 광주시장 후보 경선 틀 등을 논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주시장 후보 경선을 마냥 늦출

수도 없는 상황이다. 윤장현 후보 측에서 경선을 받아들이기로 함에 따라 지도부에서 검토했던 전략공천 카드가 사실상 소멸될 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 내외에서는 늦어도 23일을 전후해 광주시장 경선 후보와 경선 틀을 확정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23일에도 경선 후보와 경선 틀을 확정하

지 않을 경우, 다음달 10일에도 경선을 치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경선 후보들에게 최소한의 선거 운동 기간을 부여해야 하는 현실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핵심 관계자는 "더 이상 호남지역 광역단체장 경선 후보와 틀 확정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경선이 늦어지면서 각종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당의 빠른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4·19묘지 찾은 안 대표

지난 19일 '제54주년 4·19혁명 기념식'이 열린 서울 수유동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 옛 민주계 국회의원·지역위원장 11명

## 박소정 전남위원장 임명 철회 논의 파문

옛 민주당 계열인 전남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이 새정치연합 계열의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박소정 공동위원장의 임명 철회를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소속 지역위원장 11명은 지난 19일 전남도당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박소정 공동위원장 임명 철회

건의안을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에게 제출할 것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윤석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전남지사 후보인 이낙연, 주승용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과 원외 지역위원장인 노관규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박 공동위원장의 임명 철회 건의는 노관

규 지역위원장이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임명 철회 건의안을 중앙당에 제출할 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박 위원장이 지역에서 평판이 좋지 않고 도당 위원장을 맡기에는 인지도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임명 철회

건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 등 새정치연합 계는 옛 민주당 계가 시도당 집행위원회 구성시 '5대 5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계 국회의원들은 "전남 기초의원 경선에서 공론조사 방식을 적용할 경우 조직선거, 돈 선거의 우려가 있다"며 기초의원 경선을 100% 국민여론조사로 치를 것을 논의해 새정치 계열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편 박소정 공동위원장은 전 순천YM-CA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순천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 일해 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새정치, 기초단체장 후보 자격심사 마무리

## 공천배제 인물은 몇명일까

오늘 중 부적격자 명단 발표

새정치민주연합의 6·4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후보자에 대한 자격 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빠르면 21일께 공천 배제 명단이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주말께 자격 심사를 마무리하고 배제 명단을 확정, 발표할 방침이었으나 세월호 침몰사고 여파 등으로 심사가 지연되면서 이를 연기했다. 또 애초 명단을 공개 발표를 할 예정이었으나 여파 등을 감안, 후보별로 통보하는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20일 "범죄수사경력조회 자료를 강화된 기준에 따라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많아 자료 보완에 추가 시간이 소요된데다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에 따른 애도 분위기도 감안됐다"며 발표가 미뤄진 이유를 설명했다.

당 '기초단체장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위원장 천정배)는 기초단체장 후보자 배제 기준을 대폭 강화했으나, 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기존 '공직후보자용' 자료를 제출하면서 형 실효가 만료된 범죄 전력 및 10만원

이하 벌금형에 대한 자료를 누락, 다시 제출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부적격 대상으로 거론되는 후보들을 불러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 직접 소명을 들었다. 앞서 자격심사위는 현역 단체장에 대한 직무수행평가를 위한 여론조사(인지도+적합도+재지지도)를 마쳤다.

자격심사위는 현역 교체 대상을 최대 30%까지로 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하고 형사처벌 기준에 대해 여론조사, 감사원 감사 결과 및 기관 수상실적 등을 더해 교체 폭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17일 마감한 기초단체장 후보 접수 결과, 광주 5개 구에 30명, 전남은 22개 시·군에 91명이 응모해 경쟁률이 광주는 6대1, 전남은 4.13대 1이었다.

지역별로 나누자 9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광주 서구가 8대1, 광주 남구 7대 1, 완도 7대1로 뒤를 이었다.

현역 단체장과 도전자 간 양자대결이 펼쳐질 강진·고흥·곡성·구례·담양·영광·장성·진도의 경우 2대1로 경쟁률이 가장 낮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 촉구

### 5·18단체, 국회의장 만나 중재 요청

5·18민주화운동 제34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5·18 관련 단체들이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과 관련한 국회의 존중과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했다.

19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5·18 관련 3개 단체(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와 함께 지난 18일 오전 강창희 국회의장을 만나 지난해 6월의 국회 결의가 존중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중재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면담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자 배경과 과정을 설명하고 이 노래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식순에 포함해 온 국민과 함께 제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지난해와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국가보훈처를 비롯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위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국회의장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조정해 결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5·18의 역사이자 문화로 자

리잡은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정부가 5·18민주화운동을 공식 기념일로 제정한 1997년부터 2008년까지 공식 식순에 포함해 아무런 문제 없이 제창해 왔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 의장은 "5월 단체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으며 국가보훈처장에게 국회의 뜻을 분명히 전해 국회의 결의가 존중되도록 하고 이 문제를 더 이상의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강 의장은 이들 단체를 면담한 이후 박승춘 보훈처장에게 전화를 걸어 지난해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점을 존중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6월 27일 여야 국회의원 158명의 찬성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국가보훈처가 1년이 다 되도록 아무런 가지적 조치를 내놓지 않아 갈등만 깊어지는 상황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글로벌 교육의 新요람, 대학 교육의 가치를 새롭게 쓰겠습니다

# 송도글로벌캠퍼스 4개 대학 공동 입학 설명회 개최



### 가을학기 입학설명회 일정

서울	2014년 3월 22일 오후 1시 코엑스 4층 402호
부산	2014년 3월 23일 오후 1시 백스코 3층 314~316호
대구	2014년 4월 19일 오후 1시 대구 그랜드 호텔 플라자홀
광주	2014년 4월 26일 오후 1시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201호

**SUNY Korea**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한국뉴욕주립대학교**  
www.sunykorea.ac.kr

모집학과: 기술경영학, 컴퓨터과학

입학문의: (032)626-1114

**GEORGE MASON UNIVERSITY Korea**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masonkorea.gmu.edu

모집학과: 경제학, 경영학

입학문의: (02)3210-1178

**GHENT UNIVERSITY GLOBAL CAMPUS**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www.ghent.ac.kr

모집학과: 분자생명공학, 환경공학, 식품공학

입학문의: (032)626-4101

**THE UNIVERSITY OF UTAH ASIA CAMPUS**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  
songdo.utah.edu

모집학과: 심리학, 사회복지학, 신민방송학, 공중보건학과(석사과정)

입학문의: (032)626-0540

※ 참가 신청 및 문의: 각 대학 전화신청 혹은 송도글로벌캠퍼스 웹사이트 (www.sgu.or.kr)